

과 같은 사물의 모습이 덧새겨지거나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채 남겨졌다. 또한 하트셉수트의 카르투쉬(cartouche)³²⁾가 제거된 곳에는 투트모스 3세의 할아버지 투트모스 1세와 아버지 투트모스 2세의 이름이 대신해서 쓰여졌다. 흥미롭게도 투트모스 3세 본인의 이름의 덧새겨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선대 파라오의 기념물이 도용된 신왕국 시대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 때에 하트셉수트의 흔적이 제거되는 과정은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선대 파라오의 모습 자체는 지워지지 않으며 대신 왕명과 왕의 칭호만이 지워진 후에 덧새겨져 기념물이 도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덧새겨지는 이름은 또한 도용의 주체가 되는 현 파라오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하트셉수트의 흔적이 지워지게 된 정확한 동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트셉수트의 역사적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와 그녀의 치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파라오의 개인적 평가와는 별개로 궁정 내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정치적 판단이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을 통째로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도르만³³⁾과 반 시크랜³⁴⁾은 자세한 문헌학적·고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투트모스 3세와 그의 궁정에 의한 하트셉수트 기억말살 프로젝트가 하트셉수트 사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말살 행위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행해진 것은 그것이 파라오의 개인적 감정에

32)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지던 타원형의 틀.

33) P. F. Dorman (1988).

34) C. van Siclen (1989), "New data on the date of the defacement of Hatshepsut's name and image on the Chapelle Rouge", *Göttinger Miszellen: Beiträge zur ägyptologischen Diskussion* 107, pp. 8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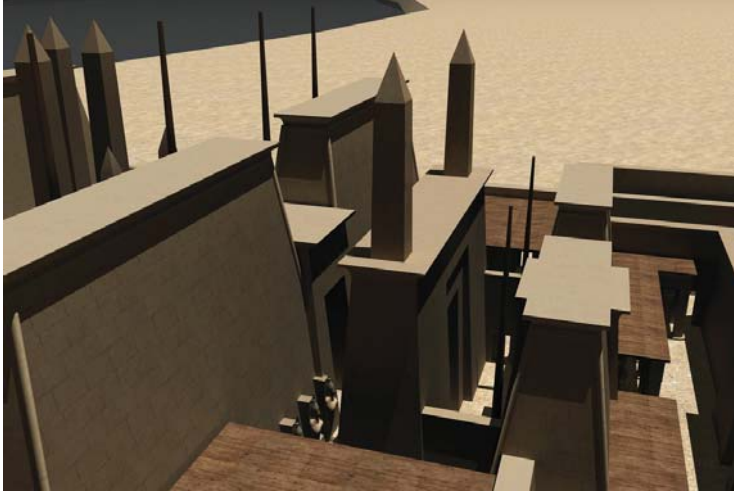
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발생한 특수한 특정한 상황 때문임을 짐작하게 한다.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의 유산에 대한 파괴행위를 시작하기 이전, 즉 그가 단독 파라오가 된 이후 약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임자와 그 시대에 대한 평가가 본고의 주제임은 앞서서 설명한 바 있다. 명쾌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두 파라오의 건축행위가 겹치는 카르낙에 대한 조사는 답변을 위한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파라오가 남겨놓은 기념물은 그 파라오의 업적을 후대에 기억되게끔 하는 물질적인 수단이며 그 파라오의 의지와 정체성이 ‘물질화된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⁵⁾ 더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혹은 그 건축물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건축행위는 기존의 건축물을 통하여 표상화된 과거 건축주체의 의지에 대한 현재 건축주체의 해석과 판단이 담긴 반응이다. 따라서 하트셉수트가 남겨 놓은 기념물을 투트모스 3세가 그녀에 대한 기억말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하트셉수트 치세에 대한 투트모스 3세의 평가와 그 이후의 투트모스 3세가 보여주는 행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2. 투트모스 3세의 와제트 전당

카르낙에서 이루어진 투트모스 3세의 건설 프로젝트는 선임자들의 그

35) 후기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적 자료로 사용되는 물건들이 과거의 사회문화 를 단순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수행자들의 의도가 담겨 적극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E. J. Pader (1982), *Symbolism, Social Rel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Mortuary Remains*.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Series, p. 35; I. Hodder and S. Hutson (2003), *Reading the P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



출처: UCLA Digital Karnak

[그림 7] 와제트 전당 복원도

것을 양과 질에 모두에 있어서 크게 능가한다. 결과적으로 그의 단독 재위 기간 동안 카르낙의 경관은 그 이전시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카르낙 신전 전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본고의 주제를 넘어서는 만큼 여기에서는 하트셉수트의 기념물과 관련이 있는 투트모스 3세의 건축행위들만 살펴보기로 한다. 투트모스 3세의 단독 치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장소들 가운데 하나는 이전 장에서도 언급했던 하트셉수트도 공을 들여 단장한 와제트 전당이다. 이 장소는 투트모스 3세의 할아버지이자 하트셉수트의 아버지였던 투트모스 1세가 제4 탐문과 제5탐문 사이에 건설한 일종의 회랑(回廊)이다[그림 1]. 앞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트셉수트는 이곳에 이미 설치되어있던 석재 기둥들을 제거한 이후 두 개의 화강암 오벨리스크를 세웠다. 투트모스 3세는 이 오벨리스크들의 중단까지 감싸는 석벽을 쌓은 뒤 그것을 이어 일종의 작은 탐문을 만들었다[그림 7]. 오늘날에는 오벨리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출처: 필자

[그림 8] 석벽에 의하여 일부가 가려진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
하트셉수트의 카르투쉬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석벽만 일부가 남아 마치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를 가리기 위하여 석벽을 쌓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트셉수트에 대한 투트모스 3세의 증오를 보여주는 증거로 자주 제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하트셉수트의 카르투쉬는 파괴되지 않았으며[그림 8] 고고학적 조사는 이 석벽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작은 규모의 탐문의 일부였음을 밝혔다.³⁶⁾ 따라서 오벨리스크에 덧붙여진 구조물을 하트셉수트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투트모스 3세는 와제트 전당에서 하트셉수트가 설치한 목재 기둥을 남쪽 8개, 북쪽 6개, 총 14개의 파피루스형 석재기둥으로 교체하기도 하

36) E. Dondelinger (1977), *Der Obelisk: ein Steinmal ägyptischer Weltanschauung*. Graz: Akademische Druck, pp. 47-51; J. C. Golvin (1993), "Hatchepsout et les obelisques de Karnak", *Hatchepsout: femme pharaon, Les Dossiers d'Archeologie* 187. pp. 34-41.

였다.³⁷⁾ 블리츠는 석재기둥의 교체작업이 폭우로 인하여 손상된 와제트 전당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³⁸⁾. 작업이 이루어진 정확한 동기가 무엇이었던 투트모스 3세의 의도는 와제트 전당에 위치한 구조물들의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그가 세운 석벽 덕분에 하트셉수트 오벨리스크는 제자리에 큰 손상 없이 보존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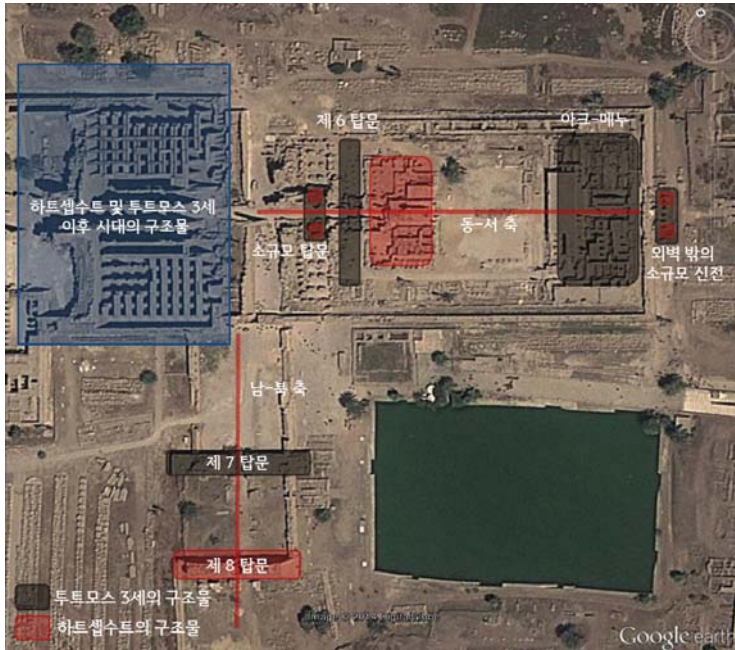
투트모스 3세가 와제트 전당에서 보여준 건축행위는 하트셉수트가 기존의 건축물들을 최대한 보존시키며 진행했던 카르낙의 중심축 강화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와제트 전당이 하트셉수트의 건축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아트와 붉은 예배실이 위치하는 카르낙 신전 심장부로 들어가는 일종의 전실(前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³⁹⁾ 투트모스 3세의 노력이 하트셉수트가 그린 청사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견해는 어렵지 않게 납득될 수 있다. 하지만 와제트 전당의 단장은 투트모스 3세의 생전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는 전당의 북쪽부분만을 마무리 지었으며 나머지 단장작업을 끝낸 것은 투트모스 3세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멘호테프 2세였다.⁴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멘호테프 2세는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말살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을 제거하는 선택을 하였던 이들조차도 하트셉수트에 의해서 고안되고 시작된 카르낙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였을 정도로 프로젝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7) E. Blyth (2006), p. 78.

38) E. Blyth (2006), p. 79.

39) G. Björkman (1971), *Kings at Karnak: A study of the treatment of the monuments of royal predecessors in the early New Kingdom*. Uppsala: Uppsala University, p. 75.

40) J. F. Carlotti and L. Gabolde (2003), "Nouvelles données sur la Ouadjyt", *Les Cahiers de Karnak* 11, pp. 293-295.



출처: 구글어스의 위성사진 위에 필자가 표시

[그림 9] 투트모스 3세 시대의 카르낙

카르낙 신전의 제6탑문은 투트모스 3세의 건축물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탑문은 제5탑문과 마야트의 궁전 사이의 좁은 공간에 세워졌다 [그림 9].⁴¹⁾ 자연스럽게 제6탑문은 마야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가 되었다. 투트모스 3세는 또 다른 탑문을 건설하는데, 오늘날에는 제7탑문이라 불리는 탑문이다. 이 제7탑문은 카르낙 신전의 남-북축 상에 건설되었는데 하트셉수트가 세운 제8탑문을 신전의 중심축인 동-서축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9]. 투트모스 3세는 이 탑문 앞에 붉은

41) E. Arnaudès-Montélimard (2007), “L’arche en granit de Thoutmosis III et l’avant-porte du VIe pylône”, *Les Cahiers de Karnak* 12, pp. 127-130; G. Björkman (1971), pp. 77-78.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를 한 쌍 세웠다.⁴²⁾ 이 사실을 통하여 투트모스 3세 역시도 하트셉수트가 오페트 축제를 위하여 정비한 신전의 남-북 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투트모스 3세는 신전의 동-서축 강화와 남-북축 정비로 대표되는 하트셉수트의 카르낙 프로젝트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가 비록 훗날에는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었지만 최소한 단독치세가 시작된 직후에는 하트셉수트의 계승자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하트셉수트의 치세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그 자체로 망각되어야 할 역사로 여겨졌다면 하트셉수트가 고안하고 시작했던 카르낙 프로젝트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4.3. 붉은 예배실

하트셉수트의 주요한 유산들 가운데 하나인 붉은 예배실을 투트모스 3세가 다룬 방식은 그가 하트셉수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감정과 그 감정에서 기인하는 정책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 생전에 단장이 마무리되지 못했던 붉은 예배실의 단장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자신이 마무리 지었던 이 구조물을 해체시켜 버린다. 그런데 이 해체는 구조물의 완벽한 파괴로 이어지는 않았다. 붉은 예배실의 해체는 위에서 언급한 제6탑문과 마아트리의 궁전을 연결하는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 해체된 붉은 예배실의 부속재 가운데 일부는 이 벽을 세우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붉은 예배실의 앞문과 뒷문은 하트셉수트가 건설한 또 다른 구조물인 마아트리의 궁전 내부에 투트모스 본인을 위한 성소를 만드는

42) L. Habachi (1984), pp. 73-77.

데에 재사용되었다.⁴³⁾ 이 모든 과정에서 하트셉수트가 세운 구조물 일부가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그녀가 고안한 카르낙 프로젝트의 큰 틀은 계속해서 존중되었다.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가 남겨놓은 구조물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의 건축행위들은 모두 카르낙의 중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트셉수트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존중하던 투트모스 3세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하트셉수트의 업적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제6탑 문을 건설하며 마야트의 궁전과의 사이에 조성된 좁은 마당을 황금으로 치장한 것과 다음에서 설명될 아크-메누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들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하트셉수트의 업적을 능가하고자 하는 투트모스 3세의 의지는 훗날 그녀에 대한 기록말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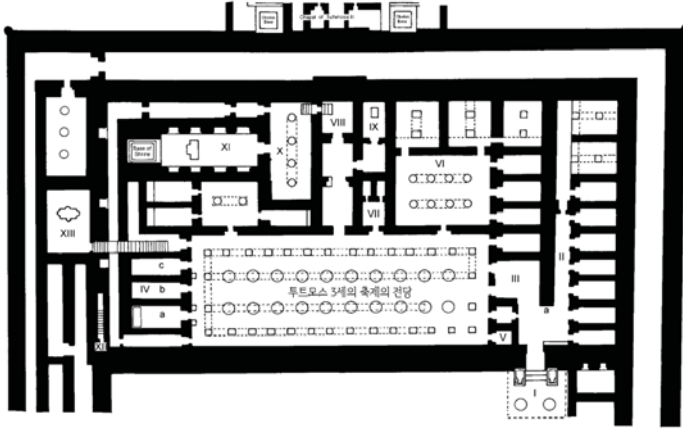
4.4. 아크-메누(Akh-menu)

‘투트모스 3세의 축제의 전당’이라고도 불리는 아크-메누(Akh-menu)는 투트모스 3세가 높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존중해오던 하트셉수트의 업적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 건축물의 기능과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벨은 이 건축물에서 최소한 투트모스 3세의 치세 동안에는 지상의 왕을 위한 갱신제가 열렸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투트모스 사후에는 나일 강 서안에 위치한 장례신전과 비슷한 용도로 쓰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⁴⁴⁾

카르낙 신전의 후면에 덧붙여진 이 건축물은 투트모스 3세의 단독 치

43) F. Burgos, F. Larché, and N. Grimal (2006), p. 11; P. F. Dorman (1988), pp. 54-65; J. F. Carlotti (1995); J. F. Carlotti and L. Gabolde (2004).

44) L. Bell (1997), “The New Kingdom ‘divine temple’: The example of Luxor”, *Temples of ancient Egypt* (ed. by B. Shaf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58.



출처: Blyth 2006

[그림 10] 아크-메누 평면도



출처: 필자

[그림 11] 아크-메누 전경

세가 시작된 뒤에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그림 10, 11]. 아크-메누는 커다란 기둥으로 이루어진 열주실과 세 개의 예배실, 소카르(Sokar) 신에게 봉헌된 여러 개의 방, 신성한 이미지를 위한 공간, 한 층 높게 만들어진 태양의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이 가운데에 동-식물원이라 불리는 공간이 관심을 끈다. 이 공간은 여러 이국적인 동물과 식물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는데[그림 12] 이 동식물들은 투트모스 3세가 해외 군사원정 시에 이집트 외부 지역에서 봤음직한 것들이다. 군사활동은 투트모스 3세를 여성이었던 하트셉수트와 구별 짓는데 매우 효과적인 주제이다. 하트셉수트는 20년에 이르는 치세동안 한 차례도 군사행동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투트모스 3세가 공들여 지은 공간을 군사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제로 단장한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카르낙 신전에서 아크-메누로 진입하는 입구는 오랫동안 남서쪽 구석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최근에 프랑스 학자들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동쪽에도 건물의 중앙 축을 관통하는 입구가 있음을 밝혀냈다.⁴⁶⁾ 투트모스 3세는 이 입구 바로 바깥에 카르낙 신전과는 반대방향으로 향해져 있는 소신전을 건설한다. 이곳은 하트셉수트가 거대한 한 쌍의 오벨리스크를 세웠던 곳이기도 하다. 이 소신전은 카르낙 신전과는 입구가 반대편으로 나있지만 여전히 신전의 중심축 상에 위치하게 된다. 하트셉수트가 세운 한 쌍의 오벨리스크는 소신전에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소신전은 카르낙 신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예배활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신전의 중심부에서는 투트모스 3세와 아멘-라 신이 나란히 앉아 있는 석상이 발견되었

45) J. F. Carlotti (2001), *L'Akhe-menou de Thoutmosis III à Karnak : etude architecturale*. Pari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46) F. Larché (2007), "Nouvelles observations sur les monuments du Moyen et du Nouvel Empire dans la zone centrale du temple d'Amon", *Les Cahiers de Karnak* 12, pp. 444-445.



출처: 필자

[그림 12] 동-식물원의 부조들

는데⁴⁷⁾ 이것은 후대에는 더 자주 등장하게 되는 살아있는 왕의 신격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왕의 스스로에 대한 신격화는 여러 개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공유되는 파라오라는 직위보다는 현재에 실존하는 투트모스라는 개인을 더 강조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했을 것이 분명하다. 투트모스 3세의 개인적 자아에 대한 인지는 전임자인 하트셉수트의 업적을 뛰어넘기 위하여 현재의 자신을 하트셉수트 혹은 하트셉수트 치세 때의 자신과 끊임없이 구별지음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47) L. Bell (2002), pp. 142-144; P. Brand (2007), “Veils, votives, and marginalia: The use of sacred space at Karnak and Luxor”, *Sacred space and sacred function in ancient Thebes*, (ed. by P. Dorman),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pp. 60-61.

48)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타자와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개인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결론

고고학적 증거로도 확인되는 문화의 변동과 재생산은 실제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역사적 주체(historical subject)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문화변동과 문화지속을 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주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 역사적 주체로 가정된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였던 파라오직을 수행하였던 투트모스 3세 개인이었다. 투트모스 3세의 하트셉수트와 그녀의 치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다시 표현되는 투트모스 3세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은 다양한 고고학적 양상과 이집트 신왕국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하트셉수트는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집트의 전통을 훌륭하게 관리하였으며 기존의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따라서 그녀가 후대 파라오에게 훌륭한 지표이자 뛰어난 전통의 재창조자로 평가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투트모스 3세는 실제로 하트셉수트 사후 약 20년간은 그녀의 유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의 치세 동안 왕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일정부분 박탈당한 채 제2파라오로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기존의 파라오들과는 달리 하트셉수트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치세 동안에도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저항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투트모스 3세는 단독 파라오가 된지 약 20년 후 하트셉수트에 관한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변화는 설령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을지라도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특정 시점이 되어서는 그녀를 기억에서 지워버릴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트셉수트가 그랬던

청사진 자체가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지워졌던 적은 없다. 심지어는 기억말살 정책의 혜택을 입은 아멘호테프 2세도 하트셉수트의 프로젝트를 부정하지 않았다.

복잡하고 일견 모순된 과정 속에서 투트모스 3세의 개인적 자아는 하트셉수트와 비교-대조됨으로 그 자신에게 인지되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의 유산을 유지하고 파괴하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능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의사결정권자인 파라오 본인에 의해서 재확인된 자신의 개인 정체성은 국가적 정책으로도 발현되었다. 투트모스 3세는 22차례에 이르는 해외 군사원정을 단행했는데 이 숫자는 전후의 다른 파라오들과 비교할 때에 현저하게 많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군사원정들이 그의 치세 30년에서 40년경에 이르던 시기, 그러니깐 그가 단독 파라오가 된 이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⁴⁹⁾ 군사원정은 투트모스 3세가 그의 남성성을 과시함으로써 남성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성 파라오였던 하트셉수트의 업적을 능가하여 그녀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하트셉수트와 차별화되는 본인의 개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된 투트모스 3세의 지속적인 군사원정은 이후 누비아와 팔레스타인 등 외국에 대한 직접 통치를 시도하는 신왕국 시대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이 정책은 이후 이집트가 2-3세기 가량 근동지역에서의 패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투트모스 3세의 개인적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으로 유지된 이집트의 지역패권은 앞서서 하트셉수트가 특수한 여건 속에서 재정비한 국가규모의 축제들과 함께 신왕국 시대의 사회적 질서와 파라오의 왕권의 재생산에 매우 긍정적인 조건으로

49) P. F. Dorman (2006), p. 39; D. O'Connor (2006), "Thutmose III: An Enigmatic Pharaoh", *Thutmose III: a new biography*, (ed. by E. Cline and D. O'Conno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 6.

작용하였다. 투트모스 3세의 노력은 당대 세계체계 내에서의 이집트가 갖는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으며, 하트셉수트의 업적은 이집트 내부 질서의 효과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⁵⁰⁾ 신왕국 사회의 높은 문화적 재생산성과 하트셉수트-투트모스 3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두 파라오의 개인적 정체성의 상관관계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의 사회사 연구를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0) 거대한 규모의 의례가 사회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인류학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C. Geertz (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 Kwon and B. H. Chung (2012),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참고문헌

【논 저】

- English -

- Assmann, J. (1994), "Ocular Desire in a Time of Darkness: Urban Festivals and Divine Visibility in Ancient Egypt", *Ocular Desire: Sehnsucht des Auges. Yearbook for Religious Anthropology* (ed. by R. E. Aharon and J. Assmann), Berlin: Akademie Verlag.
- Baines, J. (2007), *Visual and written culture in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ines, J. and Malek, J. (2000). *Cultural Atrals of Ancient Egypt*, New York: Checkmark Books.
- Bell, L. (2002), "Divine kingship and the theology of the obelisk cult in the temples of Thebes", *Ägyptologische Tempeltagung: Würzburg, 23-26. September 1999, Vol. 5,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33*, Wiesbaden: Harrassowitz.
- _____ (1997), "The New Kingdom 'divine temple': The example of Luxor", *Temples of ancient Egypt* (ed. by B. Shaf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jörkman, G. (1971), *Kings at Karnak: A study of the treatment of the monuments of royal predecessors in the early New Kingdom*, Uppsala: Uppsala University.
- Blyth, E. (2006), *Karnak: evolution of a temple*, London: Routledge.
- Brand, P. (2007), "Veils, votives, and marginalia: The use of sacred space at Karnak and Luxor", *Sacred space and sacred function in ancient Thebes* (ed. by P. Dorman),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 Breasted, J. H. (1906), *Ancient records of Egyp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rman, P. F. (2006), "The Early Reign of Thutmose III: An Unorthodox Mantle of Coregency", *Thutmose III: a new biography* (ed. by E. Cline and D. O'Conno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_____ (2005), "Hatshepsut: Princess to Queen to Co-Ruler", *Hatshepsut : from queen to pharaoh* (ed. by C. H. Roehrig, R. Dreyfus, and C. Keller), New

-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Dorman, P. F. (1988), *The Monuments of Senenmut*,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 Gabolde, L. (2007), “An atlas of the obelisks of Karnak”, *Egyptian Archaeology* 31.
- Geertz, C. (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bachi, L. (1984), *The obelisks of Egypt: Skyscrapers of the past*, Cairo: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 Hodder, I. and S. Hutson (2003), *Reading the P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in, S. B. (2001), “Memory and the Sense of Personal Identity”, *Mind* 121/483.
- Kemp, B. (1989), *Ancient Egypt: Anatomy of a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 Kwon, H. and Chung, B. H. (2012),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Meskell, L. (2004), *Object Worlds in Ancient Egypt: Material biographies and present*. Oxford: Berg.
- Miller, D. (2005), “Materiality: An Introduction”. Materiality (ed. by D. Mill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Nims, C. F. (1966), “The date of the dishonoring of Hatshepsut”,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93.
- O’Connor, D. (2006), “Thutmose III: An Enigmatic Pharaoh”, *Thutmose III: a new biography* (ed. by E. Cline and D. O’Conno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ader, E. J. (1982), *Symbolism, Social Rel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Mortuary Remains*.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Series.
- Robins, R. G. (1997), *The Art of Ancient Egypt*.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Ross, B. M. (1991), *Remembering the Personal Past: Descriptions of Autobiographical Mem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ullivan, E. A. (2012), “Visualising the size and movement of the portable festival barks at Karnak temple”, *British Museum Studies in Ancient Egypt and Sudan* 19.
- van Siclen, C. (1989), “New data on the date of the defacement of Hatshepsut’s name and image on the Chapelle Rouge”, *Göttinger Miszellen: Beiträge zur ägyptologischen Diskussion* 107.

- French -

- Arnaudiès-Montélimard, E. (2007), "L'arche en granit de Thoutmosis III et l'avant-porte du VIe pylône", *Les Cahiers de Karnak* 12.
- Burgos, F., Larché, F. and Grimal, N. (2008), *La chapelle rouge: Le sanctuaire de barque d'Hatshepsout, Vol. II*,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 _____ (2006), *La chapelle rouge: Le sanctuaire de barque d'Hatshepsout, Vol. I*,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 Carlotti, J. F. and Gabolde, L. (2003), "Nouvelles données sur la Ouadjyt", *Les Cahiers de Karnak* 11,.
- Carlotti, J. F. (2001), *L'Akb-menou de Thoutmosis III à Karnak : etude architecturale*. Pari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 _____ (1995), "Mise au point sur les dimensions et la localisation de la chapelle d'Hatshepsout à Karnak", *Les Cahiers de Karnak* 10.
- Chappaz, J. L. (1993), "Un cas particulier de corégence: Hatshepsout et Thoutmosis III", *Individu, société et spiritualité dans L'Égypte pharaonique et copte: Mélanges égyptologique ferts au Professeur Aristide Théodoridés* (ed. by C. Cannuyer and J. M. Kruchten), Brussels: Illustra.
- Gabolde, L. (1999), "Aux origines de Karnak: Les recherches récentes dans la 'cour du Moyen Empire'", *Bulletin de la Société d'égyptologie Genève* 23.
- _____ (1998), *Le "grand château d'Amon" de Sésostri 1er à Karnak: La décoration du temple d'Amon-Rê au Moyen Empire*, Paris: Diffusion de Boccard.
- Graindorge, C. (1993), "Naissance d'une chapelle reposoir de barque", *Hatchepsout: femme pharaon, Les Dossiers d'Archeologie* 187.
- Golvin, J. C. (1993), 'Hatchepsout et les obelisques de Karnak', *Hatchepsout: femme pharaon, Les Dossiers d'Archeologie* 187.
- Larché, F. (2007), "Nouvelles observations sur les monuments du Moyen et du Nouvel Empire dans la zone centrale du temple d'Amon", *Les Cahiers de Karnak* 12.

- German -

- Dondelinger, E. (1977), *Der Obelisk: ein Steinmal ägyptischer Weltanschauung*. Graz: Akademische Drucku.

Sethe, K. (1927-1930), *Urkunden der 18 Dynastie IV*, Leipzig: J. C. Hinrich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8), 「UCLA Digital Karnak」, <http://dlib.etc.ucla.edu/projects/Karnak/>

원고 접수일: 2014년 9월 28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0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30일

ABSTRACT

Thutmose III's Recognition of the Past
and His Individual Identity
-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Kwack, Min-soo*

The relationship between Thutmose III and Hatshepsut is a topic that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It was suggested that Thutmose III was resentful of his stepmother, since Hatshepsut usurped the throne for the first two decades of Thutmose's reign. Thus, after her death, Thutmose demolished his stepmother's vestige with vindictive fury. However, the traditional theories have been recently revised. It has become accepted that Thutmose played important roles as a pharaoh even during the period of Hatshepsut, and that Thutmose's project to demolish the monuments of Hatshepsut did not begin until about twenty years after her death. This was conducted not because of animosity, but for a political purpose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Amenhotep II. In this article, based on this accepted suggestion, the activities of the two pharaohs at Karnak will be examined, and how the past was recognised by Thutmose and how this recognition was represented in his later practices will be discussed.

* Department of Archaeology, Durham University (U.K)